



동양 최대의 백련(白蓮) 자생지인 무안 화산 백련지 내 손목시계 모양이 그려진 산책로.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의 '남도 여름 여행' 책자에는 가볼만한 전남 여름 여행지 정보들이 담겼다. <전남도 제공>

매력적인 전남 여름여행 바로 이곳

전남도, 피서지·축제·먹거리 등 담은 책자 '남도 여름 여행' 펴내
수도권 등 전국 225개 관광안내소에 배포...온라인서도 확인 가능

전남도가 맛과 멋, 풍광을 두루 갖춘 여행지를 전국에 추천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전남의 여름 여행지 정보를 담은 '남도 여름 여행' 책자를 제작해 수도권 관광안내소 등 전국 주요 여행 관련 기관 225개소에 배포했다. 전남도는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여행 책자를 계절마다 발간한다. 22개 시·군을 서부권, 중남부권, 동부권, 북부권, 4개 권역으로 나눠 1개 시·군당 대표 관광지 1곳, 연계 관광지 2곳, 대표 음식 1개와 함께 시·군별 축제 정보를 수록해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권역별로 ▲서남부권은 목포 외도도 해수욕장, 완도 청산도, 해남 대흥사, 무안 황토갯벌랜드, 신

안 대항해수욕장, 진도 세방낙조 ▲중남부권은 나주 국립나주수채원, 보성 울포해수욕장, 화순 동가리계곡, 강진 도암 석문공원, 영암 기전랜드,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을 담았다. 또 ▲동부권은 여수 아쿠아플라넷, 고흥 팔영산자연휴양림, 구례 피아골, 순천 용오름마을 계곡, 광양 어치계곡 ▲북부권은 담양 가마골 계곡, 영광 백수해안도로, 곡성 도립사 계곡,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장성 죽령산 편백숲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여행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여름 축제 소식, 여름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해변, 계곡 등 피서지와 함께 시·군 별미 정보를 풍성하게 수록했다. 민어, 병어회, 갯장어 등 먹거리가 풍성한 전남에서 여름철 더운 날씨로 지친 체력을 보충하고 아

름다운 풍광 속에서 낭만 가득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안 섬 크로코스미아 꽃축제, 무안 연꽃축제, 장흥 불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등을 즐기며 여름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꾸몄다. 책자는 온라인에서는 남도여행길잡이(namdokorea.com) 관광 웹진 보기 메뉴에서 열람하거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전남관광플랫폼(JN TOUR)을 이용하면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확인해 자신만의 전남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회원 가입하면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혜택이 풍부하다. 전남과 광주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다.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시설 1706개소 이용 시 1박 기준 숙박료에 따라 10만원 이상은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의 숙박비 할인 혜택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22개 시군 '사랑에 서포터즈' 100만명 조기 달성 맞춘

할인가맹점 혜택 발굴 등 노력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50만 돌파를 앞두고, 지난 12일 영상회의를 열어 100만 명 조기 모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 사업'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 100만명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서포터즈 모집 시즌 2를 준비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

춰 다양한 할인가맹점 혜택을 발굴, 서포터즈가 전남에 직접 방문토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은 서포터즈 50만 돌파를 위해 협력해준 22개 시·군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도정소식 홍보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채널을 개설하고, 서포터즈 리더를 선정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다양한 정보 확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영상회의에 참석한 나수희 나주시 정책홍보실장은 "서포터즈가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

을 방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용 후기를 작성하면서 맛집으로 입소문이나 손님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포터즈 모집과 할인가맹점 확대를 위해 온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 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포터즈에 가입하면 250여 도내 할인가맹점에서 혜택을 누리며, 전남의 관광, 축제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신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여순사건 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신고서 제출·조사없이 결정

전남도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양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이다. 서면 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

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양위는 직권결정 공고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박균택 의원, 법사위 참석 본격 상임위 활동

3개 연구모임 가입 등 활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이 다양한 당직과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전인 지난 4월부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정치검찰사건조사특별대책단 간사로 임명돼 민주당 법률 현안 대응을 맡았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 또 박 의원은 공식 출범을 앞둔 3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했다.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은 박주민·민병덕·김영배·김남근 국회의원이 출범 준비 중인



연구단체로, 민생개혁과 혁신성장 관련 정책연구 개발과 연구,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현장 단체들과의 연대를 목표로 한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한중 의원연맹,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검찰개혁과 특검법제정 포럼(준위원회)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대한민국 정당화를 위해 맡은 당직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동료 의원들과 함께 미래의제·민생경제·사법개혁 분야를 연구해 깊이 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시 식품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용임 광주시의원 대표발의

'맛의 본고장'으로 불리지만 정작 지역 식품 산업 육성을 돕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광주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를 '맛의 고장, 미향'의 도시로서 더 성장시키고 광주 식품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임(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광주시가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광주시가 식품 산업 지원 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되 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식품



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시설·장비·경영 컨설팅 지원, 식품 산업 전문 인력 양성, 식품 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오는 19일 광주시의회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식품 산업을 장려해 지역 식품을 널리 알릴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김치타운 등에서도 해당 조례 통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임 의원은 "광주는 호남권 최대 식품 박람회인 광주 식품 대전을 18년 동안 여는 등 '맛의 본고장'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지역 식품 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근거가 없었다"며 "광주 식품 산업을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게끔 해 지역 발전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

광양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도시 광양

#경제도시 #맞춤형복지도시 #관광문화도시